

키움 히어로즈가 **2024**시즌을 이끌 주장을 선임했습니다. 국가대표 내야수 김혜성(**25**)입니다.

김 감독은 **16**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김홍원기 감독이) 팀을 잘 돌보라고 했다.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감독은 "김혜성 선수는 젊은 선수들을 이끌 리더십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대회에서 주장으로 활약한 경험이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은 김 감독에게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2023**시즌이 끝난 후 김 감독은 공개적으로 **ML** 도전 의사를 밝혔고, 키움은 수요일 김 감독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락했습니다.

개인 성적에 신경 쓰느라 바쁜 와중에 주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은 "부담감은 없다. 항상 후배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4시즌을 앞두고 키움은 **14**명의 신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시즌 동안 고양으로 개인 훈련을 온 김혜성 선수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키움 1라운드 지명자 김윤하는 "김혜성 선수가 너무 멋져 보인다. 하지만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인 시절 김 선수의 주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인 시절인 **2017**년에는 내야수 서건창이 히어로즈의 주장을 맡았습니다. 김 선수는 신인 시절을 회상하며 "서건창 선수가 주장이라서가 아니라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함께 운동할 때 더 가까워집니다. 신인들이 1군에 합류하면 함께 운동하고 잘 접근할 것입니다."

16일, 또 다른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2024에서 키움, LG 트윈스, 그리고 대표팀이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선발되었습니다.[카지노사이트](#)

김혜성이 키움에서 뛸지, 국가대표에서 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김혜성이 ML 스타 선수들을 만나 멋진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혜성은 "정말 기대가 된다"며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히어로즈의 선배이자 샌디에이고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골드글러브상을 수상한 김하성 선수입니다. "(김)하성 선수를 상대팀으로 만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선수는 신나고 색다른 기분을 느낄 거예요."라고 김하성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성은 "작년에 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가을까지 팬들과 함께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키움은 지난해 리그 최하위(10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팀이 포스트시즌(가을야구 리그) 진출에 실패한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장 김혜성의 각오는 매우 확고합니다.